

충남 초·중·고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의 정 토 론 회



일시

2016. 6. 22.(수) 15:00

장소

천안교육지원청

주최

충청남도의회



충청남도의회

토론회 개요

- 일 시: 2016. 6. 22.(수) 15:00 ~ 17:00
- 장 소: 천안교육지원청
- 주 최: 충청남도의회
- 주 제: 충남 초·중·고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진행 흐름

시 간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소요		
< 개 회 식 >				
15:00	15: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입법정책담당관
15:05	15:10	5'	내빈소개, 개회사 등	홍성현 위원장
< 토 론 회 > ※ 진행 : 김종인 교수				
			주 제 발 표	
15:10	15:30	20'	▶ 홍성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충남 초·중·고 체육 활성화 방안	
			지 정 토 론	
15:30	16:15	45'	▶ 지재규 / 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장학사 ▶ 김현경 / 아산남성초등학교 학부모 ▶ 최진혁 / 충청남도체육회 운영팀장	토론자 전체 (각 15분)
16:15	16:35	20'	자 유 토 론	발제자 및 토론자
16:35	16:55	20'	청중 토론(질의 답변)	참여자 전체
16:55	17:00	5'	정 리 및 폐 회	좌장(김종인 교수)

목차 Contents



■ 주제발표

- ☞ 충남 초·중·고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 1
홍성현(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 지정토론

- ☞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 ... 9
지재규(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장학사)
- ☞ 학부모가 바라는 운동부 육성 방향 17
김현경(아산남성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 ☞ 충청남도 엘리트 체육현황 및 활성화방안 21
최진혁(충청남도체육회 팀장)

주제발표

충남 초·중·고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홍 성 현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충남 초·중·고 학교 체육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 성 현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홍성현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연일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신 학부모님과 체육을 사랑하시는 학교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체육 전문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전국 최고의 체육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공주대학교 체육교육과 김종인 교수님께서 토론회의 좌장을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말에는 충청남도의 어린 학생들이 강원도 일원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여 2015학년도 전국 11위에서 올해는 전국 8위로 도약하는 좋은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충남 학교 체육의 위상을 높여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를 통해 평상 시 고민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첫째, 어떻게 하면 정상적으로 학교 체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중요성이 인식되어질 것인가? 둘째, 엘리트 체육 운영상의 문제점과 운영방향은 무엇인가? 셋째, 미래 사회와 학교 체육의 가치에 대한 문제점들은 무엇이 있는가? 에 대한 측면에서 고찰해보고 방향 제시를 통해 충청남도 학교 체육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의 현실은 출세 지향적인 교육의 영향으로 입시 위주로 학교 교육을 운영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즉, 체육 시간을 등한시 하고 게임 중심 위주의 체육 시간 운영하거나 아예 체육 수업 자체를 다른 교과 과목으로 대체 하고 자습을 시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 결과 신체적·정신적 성장 발달이 왕성한 아동 및 청소년 시기

에 다양한 신체활동을 경험하지 못하며, 운동부족으로 인한 성인병의 증가, 교우 관계의 불만족, 정서의 불안정 등 사회적 병리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높은 칼로리의 식사습관으로 과거에 비해 체격은 좋아졌으나, 지나친 컴퓨터 게임, 과외 공부 등으로 신체활동의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곧 체력이 점점 약화되는 원인이 되어 소아·청소년 비만이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되는 학생건강체력평가 결과에 보듯이 저체력 학생들의 비율도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2015년도 전국학교스포츠클럽 리그 참가학생(초·중·고등학교) 2,178명 대상 표집 설문 조사 결과, 학교스포츠클럽 리그대회 참여를 통해 교우관계 증진, 학교 자부심 거양, 배려심 및 인내심 함양, 자신감 증진 항목에서 84%의 높은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즉, 학교 체육 활동의 참여가 학교생활 적응 및 인성 변화에 학생들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러나 학교 체육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학교 체육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아직도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학부모를 포함한 국민들에게 긍정적 효과를 부각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앞으로 남겨진 과제입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학교 체육 활동의 자발적인 참여도를 높여 자라나는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체육활동 참여도를 증진시켜 삶의 질을 개선하며 방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에 대한 학교체육의 긍정적 인식 변화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충청남도 엘리트 체육의 운영상에서 논의되어야 할 내용들도 많이 지적 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한 선수들의 결과는 그냥 쉽게 나타난 산물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뒷바라지를 하신 학부모님, 지도교사 그리고 모든 일상을 뒤로하고 어린 선수들의 생활 지도까지 책임지면서 선수들과 함께해 온 각급 학교의 코치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일선학교 운동부의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면, 학교 교육과정과 더불어 순탄하게 운영되는 학교가 있는 반면 상호 간 불만족으로 불편한 상황이 초래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예로 학부모 임금, 학교 숙소 사용 관련 사항, 대회 출전, 학부모 부담 운영금, 선수와 코치의 관계, 선수 인권, 차량 운행 등 다양한 사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의 모든 운영은 학교장 중심의 학교책임 운영이기에 학교장의 학교 운동부 운영 리더십도 고려해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두에서 제기한 미래사회와 학교 체육의 가치문제에 대하여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 지식 기반사회는 하루를 자고 나면 어제의 지식은 사라지고 새로운 지식이 나타나는 유비쿼터스 중심의 스마트 기반사회입니다. 매슬로우(Maslow)의 욕구단계설을 인용하자면, 과거에는 음식을 위 속에 채워주기 위한 생리적 욕구 충족을 위한 사회였습니다. 이제는 자아실현을 중시하는 사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이 시대는 개개인의 수명도 평균 100세 이상을 목표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 사회 속의 구성원으로 준비단계에서의 필수 요인은 1인 1운동입니다. 이 요인이 충족되었을 때 100세 시대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 학교체육에서 학생개인들에게 학습해야 할 과제는 ‘미래 사회와 체육의 가치’입니다. 이는 학교에서 학습시켜야 할 중요한 임무이며 곧 우리 몫이 아닐까 합니다.

오늘 토론자로서 참석해 주신 충남교육청 지재규 장학사님, 충청남도 체육회 최진혁 팀장님, 운동선수를 직접 보살피는 김현경 학부모님 그리고 진행을 맡아 주실 공주대학교 김종인 교수님을 중심으로 아낌없는 토론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기대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오늘 의정토론회의 결과가 충청남도 초·중·고등학교 학교 체육 활성화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회의 바람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정토론

- ◇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
지 재 규 (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장학사)
- ◇ 학부모가 바라는 운동부 육성 방향
김 현 경 (아산남성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 ◇ 충청남도 엘리트 체육현황 및 활성화방안
최 진 혁 (충청남도체육회 팀장)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행복한 학교·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

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장학사 지 재 규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체육인성건강과 지재규 장학사입니다.

토론에 앞서 학부모님, 체육선생님과 운동부 지도자님, 체육관계자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원도에서 개최된 제45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식지 않은 열기의 원동력은 바로 이러한 뜨거운 애정과 관심이 아닐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아산에서 개최될 전국체육대회를 비롯하여 전국소년체전에서도 우리 충남이 상위권에 진입할 발판을 한층 더 두텁게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학교체육과 엘리트 체육, 체육지도자 상 및 선진형 학교운동부에 대해 살펴보고 고찰해보는 순서로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교육의 목적과 목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체육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을 통하여 몸과 마음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경험을 갖고 궁극적으로는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을 추구할 수 있는 인간을 형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목표로는 크게 움직임 욕구의 실현, 운동 수행 기능과 체력의 증진, 운동과 건강에 관한 지식 이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 함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윌리엄스(J.F. Williams)는 체육을 신체의 교육과 신체운동을 통한 교육이라 정의하였습니다. 즉, 신체의 교육은 신체생물학적 의미에 의한 신체형성을 꾀하며, 건강증진과 신체의 성장·발달에 도움을 주려는 교육적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신체운동을 통한 교육은 신체를 의도적으로 형성하는 동시에 성격형성·감정도야·지적 발달·사회성 증진 등 인격적 완성을 꾀하는 교육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체육(體育)은 지육(知育)·덕육(德育)과 함께 교육의 중요한 영역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이처럼 전인적인 발달을 꾀해야 한다는 새로운 교육의 입장에서 체육이 교육 분야에서 차지하는 자리는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이 신체활동의 잠재적 가치를 최대한으로 발휘시킴으로써, 인간을 형성시키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체육은 교육의 중요한 분야임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이처럼 체육의 목적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해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저희 충남교육청에서는 충남학교체육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으로는,

첫째,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체육활동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 학생 중심 체육수업 실시, 학생건강체력 평가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모두가 함께 즐기는 자율체육을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1교 1스포츠, 7560 운동, 여학생 체육활동 강화, 학교체육 활동 지원, 수영 실기 교육 및 안전 교육을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학생선수들은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통해 꿈을 키우며, 효율적인 체육 특기학교 및 특기자 관리로 학생 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투명한 학교 운동부 운영,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넷째, 연구하고 실천하는 교육전문가 실현을 위해 교사 및 강사, 운동부 지도자 연수를 확대하고, 연구학교 및 연구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안전과 동행의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사고 예방교육, 여학생 탈의실 설치, 체육 설비 및 교구 지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학생선수 기숙사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체육 발전의 안정적인 선진 체육환경 구축으로 지속적이면서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대내외적인 지향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교육의 변화는 외부의 영향보다는 내부적인 변화의 바람이 강할 때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지향점에는 교사가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담 브룩스는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 는 표현을 통해 교사의 중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수업과 관련하여 교사의 중요성 중에서 무엇보다 우선시 되는 것은 교사의 전문성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전문성을 지닌 교사는 학생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체육교육의 방향을 설계하고, 이러한 노력이 체육교육의 가치를 높게 드러내는 원동력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체육수업의 가치를 바르게 이해하고, 이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활동으로 학습활동이 진행될 때, 체육은 바람직한 모습으로 정착되어 나갈 것입니다.

체육수업의 가치와 체육수업의 변화 지향 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우선 교사들이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초고속 경제성장에 의한 물질적 풍요를 만끽하고 있으나, 입시위주 교육환경에 의해 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를 제한받게 되고 영양 과잉과 부족한 운동 등에 의해 여러 측면에서 학생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로 하여금 체육활동 참여를 통하여 개인적인 정서함양과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기르고 다양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체력 및 심신의 건강을 증진시키며 운동 경기를 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하고 즐길 수 있도록 학생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학교스포츠클럽에 참여하는 환경 조성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학교스포츠클럽이란 체육활동에 취미를 가진 같은 학교의 학생으로 구성되어 학교가 운영하는 스포츠클럽을 뜻합니다.

교과부가 발표한 2015년 학교체육 지원 사업 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학교스포츠클럽 참여 학생의 86%가 ‘교우관계가 좋아졌다.’ 고 답했고,

‘학교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다’ (86%), ‘폭력적인 행동이 자제됐다’ (81.8%), 또한 대부분의 학생이 인내심 향상(85%), 배려심 증진(84.6%), 자신감 증대(84.8%), 도전정신(86.2%) 등을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학교스포츠클럽 참여를 통해 학생들이 창의성, 셀프 리더십, 대인관계, 비판적 사고 증진 및 체력강화, 학교폭력 등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곧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의 좋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2015학년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은 전국적으로 괄목할 만한 결과를 낸 해입니다. 즉, 도내 초2 ~ 고3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국 최고의 120.8%의 학교스포츠클럽 등록률이 그것입니다. 이는 2014년도 이후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활동 누적 17시간 이상 등록률을 기초로 전국 평균 68.8%인 것을 비교하였을 시 주목할 만한 대목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결과 2015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에 23종목 초·중·고 115팀 1,580명이 참가하여 우승 8팀, 준우승 13팀, 3위 22팀 총43팀의 입상으로 내실 있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긍정적인 교육효과와 생동감 있는 학교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 및 체력을 증진시키고, 다양한 스포츠를 경험하게 하며, 창의적이고 인성적인 가치 함양을 통해 또래 문화 및 여가 문화를 형성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충남 학생선수 육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학생들의 학교스포츠클럽의 활동과 더불어 엘리트 스포츠도 학교체육활동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트 스포츠란 정책적으로 엘리트 선수들에게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국제대회 등에서 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높이는 스포츠를 일컫는 용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엘리트 선수란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법인 또는 경기단체에 등록된 선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각 급 학교에 소속된 엘리트 선수들을 학생선수라 합니다.

도내 초·중·고 전체 학생선수는 총 2,948명이며 육성학교는 초등학교 83개교 111팀, 중학교 86개교 137팀, 고등학교 56개교 98팀으로 총 225개교에서 346팀이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교육청 소속 244명, 시군체육회 65명, 도체육회 5명, 교육지원청 3명, 학부모 임용 20명 등 총 337명의 지도자가 선수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소속 지도자들에게 기본급 약 150만원의 월급여와 더불어 연차수당, 장기근무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 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적 보상금 제도인 A등급-45만원, B등급-35만원, C등급-25만원을 지원하는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A등급의 지도자는 약240만원의 월급여가 지급되며 B등급의 지도자의 경우 약220만원, C등급 지도자의 경우 약210만원의 급여가 지급됩니다.

참고로 다른 학교회계직원은 장기근무가산금, 교통보조비를 포함한 산정 금액을 기준으로 비교하였을 경우, 1년 이상 근무 시 약175만원, 20년 이상 근무 시 214만원의 월급여가 지급됩니다.

다음으로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선수 학력 저하 및 학습권 침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도입을 통해 공부하는 학생선수상 정립을 위하여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에 최저학력보장 노력,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운영, 경기대회 출전 제한, 상시 합숙훈련 근절, 기숙사 운영, 학부모 부담금 및 후원금 학교회계 편입 등을 법령으로 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반 고등학교에 체육중점학급을 개설하여 체육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 집중교육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및 체육 전문 인력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는데 체육중점학급 운영이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및 일반 중·고등학교 운동부 학생

선수 대상으로 수업결손에 대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온라인 교과 콘텐츠를 통해 기본 학력 신장을 위해 e-school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선진형 학교 운동부 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대회 참가선수 선발과정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교에서는 ‘학교체육소위원회’를 조직하여 대회 출전선수 선발규정을 수립하고 있으며, 연간학교운동부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회 출전 1주일 전까지 출전 최종 대표선수를 확정하여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선수 학부모님들께서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초·중학생의 정상적인 성장을 고려하여 새벽훈련 및 20시 이후 야간훈련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임 및 일반 운동부지도자의 학부모 부담 인건비는 월 최대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명절 보너스(연2회 이내, 1회 200만원 이내) 이외의 어떠한 수당도 운동부 지도자에게 지급 할 수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의 자발적인 결정 사항일지라도 말입니다.

단체종목(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핸드볼, 럭비)에 한하여 기본운영비를 초등학교 500만원, 중학교 750만원, 고등학교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체종목에 대하여 학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기 위해 저소득층 선수들에게 매월 초등학교 20만원, 중학교 25만원, 고등학교 3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고등학교 축구와 야구 종목에 대하여 전임지도자와 일반 운동부지도자에게 인건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단체종목(축구, 야구) 운영에 따른 차량 임차비를 초등학교 10,000천원, 중학교 15,000천원, 고등학교 20,000천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체육꿈나무 선수의 과학적 발굴 및 체계적 육성과 체육영재에 대한 종합적인 스포츠 과학 지원 시스템 제공을 위해 운동적성 우수학생 스포츠 과학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회출전 및 합동훈련 참가 등으로 운동부 지도교사의 장기 출장 발생 시 시간강사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교수·학습 환경 유지와 학생의 학습권을 위해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학교장의 운영 자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입니다. 우리 학생선수들은 바람에 흔들리며 피는 꽃처럼 시련과 고난의 역경 속을 거쳐 비로소 환한 꽃을 피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을 이겨 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는 학교장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장은 전반적인 학교교육을 위해 고민하고 문제해결을 위해서 관리자가 아닌 경영자로서 중대한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운동부가 있는 학교에서는 선수 선발과 조직 및 운동기구와 시설 등에 관한 예산을 확보 및 학생들의 안전에 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하며 선수들과 학부모들과 소통하여 원만하게 선수 육성을 하는데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스포츠의 꽃인 엘리트 스포츠의 중심은 학생선수입니다. 학생선수의 육성은 국내외적인 긍정적 파급효과 즉, 경제·사회적 발전과 사회통합의 기능,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은 학생선수 육성 지원 체계의 선진화 제고를 통해 학교체육 활성화를 능동적으로 촉진하여 행복한 학교·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의 장을 여는 새로운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토론의 장을 마련해주신 홍성현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하여 공주대학교 김종인 교수님, 충남체육회 최진혁 팀장님, 아산남성초등학교 김현경 학부모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부모가 바라는 운동부 육성 방향

아산남성초등학교 학부모 대표

김 현 경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운동하고 있는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이 시간에도 땀이라는 눈물과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인내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자식을 떠올리며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체육계의 전문가분들 앞에서 학부모의 입장에 서서 미력하나 의견 말씀을 드리는 영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하여 미래 지향적 운동부의 방향을 고민해보고 문제 의식을 공유하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처에 학부모도 같이 동참하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늘 애정 어린 관심과 지원으로 물심양면 성원해주시는 교육위원회, 학계, 교육청, 체육회 등 관계자분의 의지가 다른 학부모님들의 인식 개선의 자발적인 참여와 유도를 실현해 낼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한번 교육위원회 홍성현 위원장님, 공주대학교 김종인 교수님, 충청남도교육청 지재규 장학사님, 충청남도체육회 최진혁 팀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남성초등학교 탁구부 선수단은 창단 3년 만에 꿈에도 그리던 금메달을 획득하였습니다. 선수들은 메달을 획득하기 까지 혹은, 전국이 무대인 대회에 출전권을 따내기까지의 힘든 여정을 거쳐 좋은 결실을 맺어 학부모로서 흐뭇합니다. 이제 선수들은 본연의 자리인 학교로 돌아가 내년 전국소년체육대회를 준비하는가 하면, 졸업반 선수는 내년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시작인 것입니다.

다만 아이들은 학생이라는 신분보다는 선수를 양성하는 학교 안의 이질적인 집단으로 분류되어 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닌 지 우려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학생선수는 궁극적으로 선수이기 전에 학생입니다. 학생

으로서의 본분과 기본적 소양이 전제되었을 때 비로소 훌륭한 선수의 자격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우리나라의 엘리트 체육의 기초 산실인 학생 선수들의 기본적 소양이 충족되었을 때, 나라를 대표하는 체육인으로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정립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학생선수로서의 올바른 인성 함양〉

학교 내의 운동부 운영 방향은 그에 속한 인간성장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일련의 성장 과정 속에 학생은 자긍심과 자기수련 및 개인 또는 타인을 존경하고 배려하는 도덕관을 형성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훗날 성인이 되어 체육계의 한 분야에 정착하였을 시 긍정적 파급효과로 거듭날 것입니다.

자칫 학교에서는 성적 지향의 훈련 시스템과 단기적·가시적 성과만을 위한 운영 체제로 일관되어 인성 교육 측면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승리 지상주의의 팽배 등에 노출된 교육 환경은 학교에서의 인성 교육이 부재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인성 교육의 부재는 인간성이 결여된 학생선수만을 배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학생선수는 가치관의 확립과 정체성의 탐색을 겪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중요성은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가정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감독선생님을 포함한 코치진과 동료 선수, 선·후배 선수들을 범위로 하여 예절, 기초질서, 공동체 의식교육을 강화하고 현실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급학교로 진학 시에도 단순한 기록에 의한 줄 세우기보다는 인성적인 측면도 선별 기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운동부가 우선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은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 함양의 환경 조성입니다. 형식적이고 지식 위주의 인성 함양의 방법보다는 실천 위주의 경험적 방법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체육은 지덕체의 조화로운 발달을 중시하며 그 목표에 기인합니다. 단순한 신체적 기능의 우수 뿐 만 아니라 개인의 덕과 지식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기능적인 면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인지적인 발달이 상응되지 못한다면 반쪽짜리 선수밖에는 되지 못할 것입니다.

좁은 의미로는 선수로서의 게임 이해능력, 전술과 전략, 기술적인 적용능력 등 운동 영역의 전문적 이해의 수준을 높이며 경기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넓은 의미로 체육인의 미래를 이끌어나가거나 지도 및 조연자의 위치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당연 지식과 인품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다만, 지식 교육이라 하여 지식을 주된 내용으로 주입식·암기식이 되어선 안 되겠지요. 자신이 속한 종목, 생활, 경험, 역사 등의 전문적인 배경과 다양성,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루어져야 하며, 흥미 위주의 단순한 지식 주입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영어, 중국어 등 외국어는 회화 중심의 실용외국어도 범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최근에는 국내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세계를 중심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체육계에도 이는 필수가 되어 버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학생선수에게 인성과 지식은 신체·기능적인 발달과 견주어 균형 있는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대로 이와 같은 일련의 요소들과 환경은 가정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학교에서 지도진과 동료 학생선수들의 유대와 긍정적 기대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관심을 기울여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면 창의적이며 인간성이 풍부한 학생 선수를 육성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스스로 행복한 선수가 되는 전제조건이며, 이는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충청남도 엘리트 체육현황 및 활성화 방안

충청남도 체육회 운영팀장
최진혁

목 차

I. 충청남도체육회 현황

1. 일반현황

II. 종합체육대회 현황

1. 전국체육대회

가.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성적

나. 채점방법

2. 전국소년체육대회

가.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나. 채점방법

3. 충남도민체육대회

가.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성적

나. 채점방법

III. 충남체육 활성화 방안

1. 여건분석

2. 중점추진

3. 충남체육 현안사항

4. 충남체육 활성화 방안

< 참 고 자 료 >

1.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시도별 득점 현황

2. 제96회 종목별 득점 및 메달획득 현황

3.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시도별 메달획득 현황

4.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종목별 메달획득 현황

5.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시군별 메달획득 현황

6.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역대메달 획득 현황

7.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성적 현황

I. 충청남도체육회

1. 일반현황

가. 연 혁

① 설립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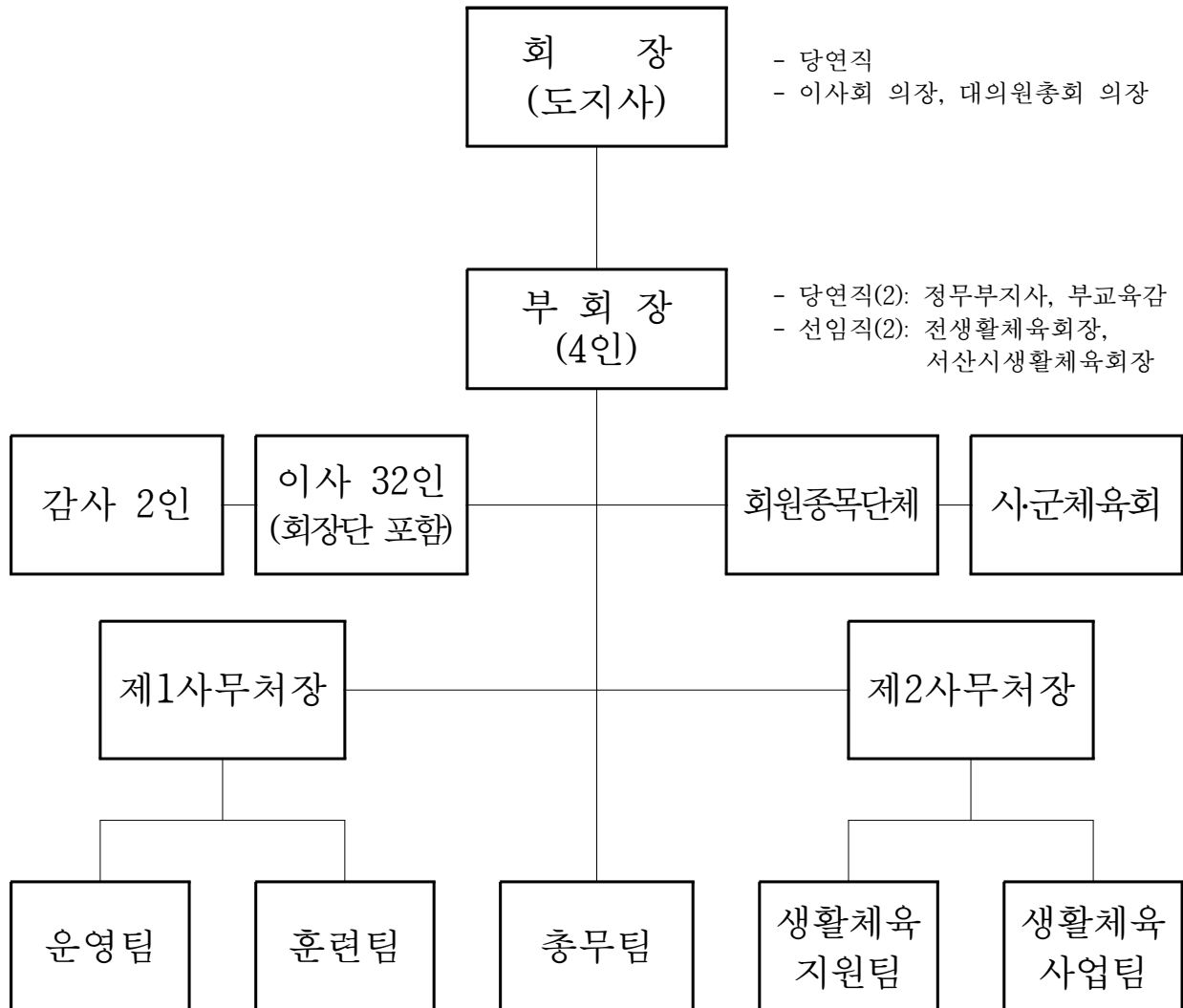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제4항
- 대한체육회 정관 제7조 제4항

② 연 혁

- 1927. 3. 충청남도체육회 발족
- 1960. 10. 제41회 전국체전 개최
- 1965. 11. 대한체육회 충청남도지부로 발족
- 1979. 10. 제60회 전국체전 개최
- 1989. 1. 대전광역시체육회 분리
- 1991. 5. 충청남도생활체육협의회 창립
- 2001. 10. 제82회 전국체전 개최(종합1위)
- 2005. 5.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 개최
- 2009. 8. ‘충청남도생활체육협의회’에서
‘충청남도생활체육회’로 명칭 변경
- 2012. 7. 세종특별자치시체육회 분리
- 2016. 2. 충청남도(통합)체육회 창립

나. 기구 및 기능

① 기 구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사무처장	팀 장	팀 원	비 고
정 원	27	2	5	20	
현 원	26	2	5	19	

② 주요기능

- 체육회 회원으로 가입한 종목단체 및 시·군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 도내 각종 종합 체육대회 및 종목별 체육대회의 개최 및 국제 교류
- 대한체육회가 개최하는 각종 종합대회의 참가 및 대한체육회가 승인한 사업의 주최·주관
- 지역 선수·지도자 및 직장운동경기부의 육성과 경기 기술의 연구 촉진
- 범도민 생활체육 운동전개 및 생애주기 생활체육 프로그램 보급
-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
-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를 위한 사업
- 지역 체육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 체육회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원 조달을 위한 수익사업
- 그 밖에 지역 체육진흥 및 체육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II. 종합체육대회 현황

1. 전국체육대회

가.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성적

- ◇ 때 · 곳: 2015. 10. 16.(금)~22.(목) 7일간/강원도
- ◇ 종 별: 고등부, 대학부, 일반부
- ◇ 경기종목: 47종목(정식 44, 시범 3<택견, 수상스키, 바둑>)
- ◇ 대회규모: 30,000명(선수 22,000명, 임원 8,000명)
- ◇ 우리도 참가인원: 1,643명(선수 1,210명, 임원 433명)

<참가결과>

구분 년도	점 수		메 달				비 고
	획득	순위	계	금	은	동	
제96회 성적	39,090	6위	208	52	60	96	
제95회 성적	39,497	7위	194	50	60	84	
증 감	△407	1단계상승	14	2	·	12	

- ⇒ · 210만 도민의 성원으로 5년만에 상위권 재진입 종합6위 목표 달성
- 강원도 충남도민회와 연계응원으로 충남인의 단합을 과시
 - 회장단, 도의장, 교육위원장 현지격려 및 도, 교육청, 체육회 3개기관의 책임분담 업무분장으로 선수단 사기진작

나. 채점방법

○ 44종목 1,000세부종목별 득점

○개인경기

- 배점 1위6, 2위5, 3위4, 4위3, 5위2, 6위1 = 21점
- 16개시도참가 $1+2+3+\dots+16 = 136 \times 100 = 13,600$
- $21\text{점} \times 75 = 1,575$
- 계산식 $13,600 \div 1,575 = 8.63$ 근점수 (계산식=확정배점÷득점=근점수)
- $8.63 \times \text{획득점} 1\text{위} 6\text{점} = 51.80 + \text{메달점} 40 = 91\text{점}$

○토너먼트 (야구 남고, 남일 총2개)

- 배점 1위8, 2위7, 4강2팀5.5 8강4팀2.5 = 36점
- 16개시도참가 $1+2+3+\dots+16 = 136 \times 100 = 13,600$
- $36\text{점} \times 2 = 72$
 - 계산식 $13,600 \div 72 = 188.88$ 근점수
- $188.88 \times \text{획득점} 1\text{위} 8\text{점} = 1,511 + \text{메달점} 80 = 1,591\text{점}$

○궁도 (남일부만 실시)

- 배점 단체1위16, 2위15, 3위14.....16위1=136점
개인1위3, 2위2, 3위1 = 6점 합계142점
- 16개시도 참가 $1+2+3+\dots+16 = 136 \times 100 = 13,600$
- 계산식 $13,600 \div 142 = 95.77$ 근점수
 - 단체1위 : $95.77 \times \text{획득점} \text{단체} 1\text{위} 16\text{점} = 1,532 + \text{메달점} 80 = 1,612\text{점}$
 - 개인1위 : $95.77 \times \text{획득점} \text{개인} 1\text{위} 3\text{점} = 287 + \text{개인메달점} 40 = 327\text{점}$

○메달가산점

- 단체 금 80, 은40, 동30
- 개인 금 40, 은20, 동10

○신기록가산점

- 세계신기록 300%, 세계타이기록 200%, 주니어신기록 160%,
주니어타이기록 100%, 한국신기록 200%,
한국타이기록, 한국주니어타이기록 60%
대회신기록, 자기최고기록 50%

○개최지 가산점

- 단체 토너먼트 시드배정
- 기록경기 개최지종합득점의 20%

2. 전국소년체육대회

가. 제45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성적

- ◇ 기 간: 2016. 5. 28.(토) ~ 31.(화) <4일간>
- ◇ 장 소: 강원도 일원
- ◇ 종 목: 35개 종목
- ◇ 참가인원: 1,108여명(선수 786, 임원 322)

<참가결과>

구 분	순위	메 달 현 황				비고
		계	금	은	동	
2016년 제45회 성적 (강원)	8위	83	29	28	26	
2015년 제44회 성적 (제주)	11위	68	21	19	28	
증 감	3단계 상승	15	8	9	△2	

⇒ . 당초 기대목표 초과 달성하며 시,도순위 8위 성적 거수

. 육상, 역도, 카누, 사격에서 7명의 선수가 다관왕을 하여

우리도 전체 성적을 주도

. 2015년부터 충남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한

학교체육활성화사업이 전력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

나. 채점방법 : 메달획득 순

3. 충남도민체육대회

가.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성적

- ◇ 때 · 곳: 2016. 6. 9(목)~12(일) 4일간/예산군 일원
- ◇ 종 목: 19종목
- ◇ 참가인원 : 7,312명(선수 5,159명, 임원 2,153명)
- ◇ 총 평
 - 개최지 예산군의 다양한 이벤트 및 관중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 등 한건의 사건 사고 없는 질서 있는 성숙한 대회로 평가

<개 최 결 과>

- 종합성적: 1위 아산시(26,300점)
2㎝ 당진시(26,200점)
3㎝ 천안시(25,150점)
- 성취상: 1위 예산군(전년대비 5,850점 증)
2㎝ 당진시(㎝ 3,400점 증)
3㎝ 계룡시(㎝ 3,350점 증)
- 모범선수단상: 부여군
- 다관왕 및 신기록 현황
 - 5관왕: 수영 조재승 외 2인
 - 4 ㎝ : ㎝ 정혜민 외 2인
 - 3 ㎝ : 육상 주혜연 외 13인
 - 2 ㎝ : ㎝ 이경난 외 15인
- 신기록 현황
 - 대회신기록: 역도 정영구 외 11인

나. 채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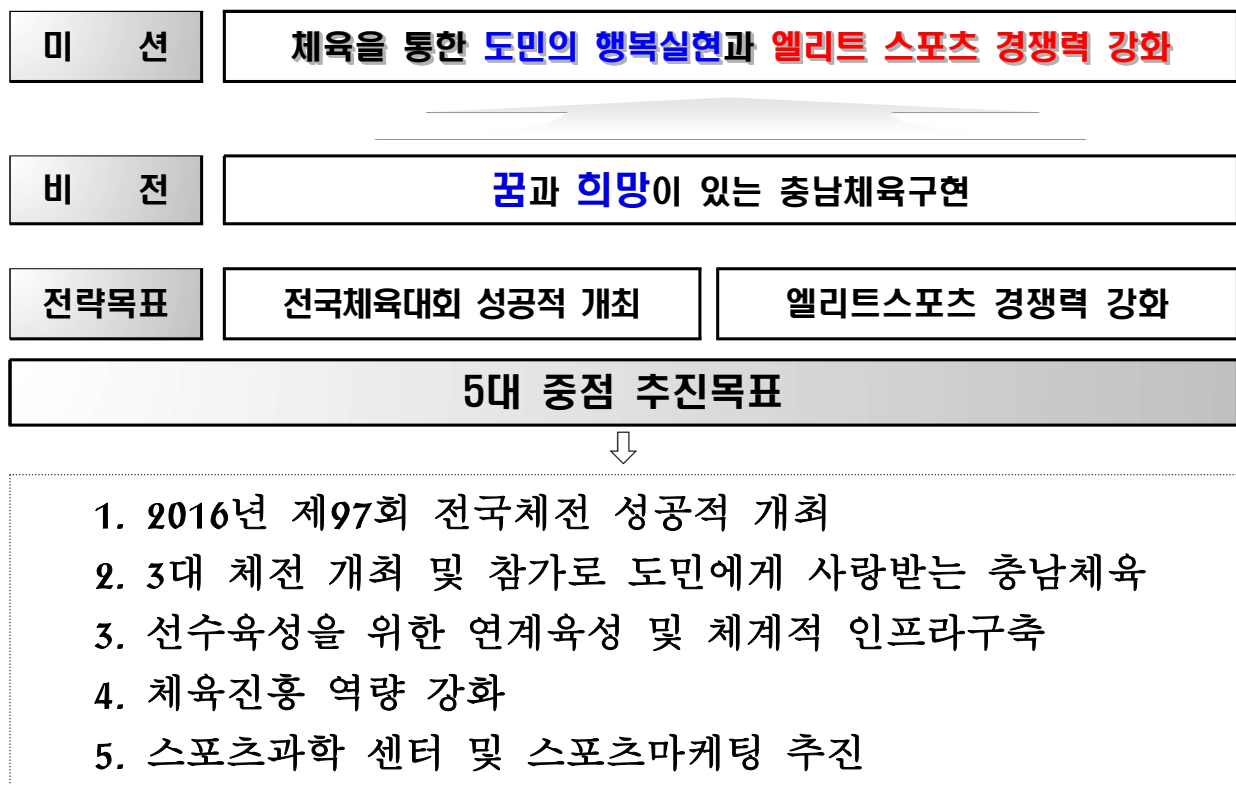
- 19개종목, 3.1억전경주대회성적, 전국체전성적

Ⅲ. 충남체육활성화 방안

1. 여건분석

- 2016년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스포츠참여 및 관심증대
-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엘리트체육에 대한 장래진로 불투명으로 학부모와 학생들의 무관심과 외면
- 각 대학 경영논리로 운동부육성 폐지조짐의 확산에 따른 대학 선수 불안가중 및 선수수급기반 약화
- 스포츠의 사회통합, 사회공헌 등 순기능확대를 위한 요구 증대
- 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지훈련 및 전국규모대회 유치열기 고조

2. 중점추진



3. 충남체육 현안사항

- 2016년 제97회 전국체전 성공적 개최
 - 가. 철저한 준비 업무추진으로 성공적 대회 경기운영에 기여
 - 나. 팀 창단 등 경기력향상으로 상위입상
- 대회 개최 및 참가로 도민에게 사랑받는 충남체육
 - 가. 제68회 충남도민체전 개최
 - 나. 제97회 전국체육대회 상위입상
 - 다.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중·상위입상 기반 조성
 - 라. 제45회 충남소년(학생)체전 개최로 꿈나무육성기반 조성
- 학교체육활성화로 체육기반 구축
 - 가. 대학체육활성화 사업추진
 - 나. 체육장학생 선발 지원
 - 다. 2016학교스포츠클럽 사업 활성화
 - 라. 코치아카데미 개설
- 체육진흥 역량 강화
 - 가. 회원종목단체 운영 내실화
 - 나. 각종 전국규모대회 유치 및 개최
 - 다. 국제 스포츠교류 활성화
 - 라. 체육인 인권보호 활동 강화
- 스포츠과학센터 및 스포츠마케팅 추진
 - 가. 지역특화 경기종목 국내외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 나. 체육회관리팀, 도, 시·군청팀 활용 마케팅 추진
 - 다. 지역 스포츠과학 거점센터 사업 참여

4. 충남체육 활성화 방안

○ 경기력 향상

- 가. 데이터 베이스구축
- 나. 훈련여건 개선
- 다. 동기부여 및 자긍심 고취
- 라. 투명한 체육인재 선발

○ 체육단체 자립기반 구축

- 가. 1사1종목, 1사1교 시스템 구축
- 나. 스포츠산업 및 마케팅 전담부서

○ 권익신장

- 가. 지도자 처우개선
- 나. 자정능력 강화
- 다. 은퇴선수 일자리 창출

○ 사회통합

- 가. 사회병리현상 치유
- 나. 봉사과 헌신
- 다. 유사대회 통합 등
- 라. 공정한 경기운영

참 고 자 료

- 1.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시도별 득점 현황**
- 2. 제96회 종목별 득점 및 메달획득 현황**
- 3.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시도별 메달획득 현황**
- 4.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종목별 메달획득 현황**
- 5.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시군별 메달획득 현황**
- 6.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역대메달 획득 현황**
- 7.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성적 현황**

1. 제96회 전국체육대회 시도별 득점 현황

구분 시도	제 96 회							제 95 회	
	성 적		메 달 수				충남대비 점수	성 적	
	순위	점 수	계	금	은	동		순위	점 수
충 남	6	39,090	208	52	60	96		7	39,497
서 울	3	50,002	300	91	105	104	10,912	2	48,707
부 산	7	37,375	203	70	52	81	△1,715	6	40,407
대 구	13	27,771	146	45	40	61	△11,319	13	27,917
인 천	8	36,379	201	58	56	87	△2,711	5	40,635
광 주	11	30,469	159	45	48	66	△8,621	15	27,023
대 전	14	26,795	147	55	33	59	△12,295	10	32,450
울 산	15	19,951	112	41	27	44	△19,139	16	21,648
세 종	17	7,911	18	6	5	7	△31,179	17	5,415
경 기	1	69,011	421	144	129	148	29,921	1	60,815
강 원	2	50,652	261	67	69	125	11,562	9	32,642
충 북	9	33,021	185	41	56	88	△6,069	8	35,108
전 북	10	31,755	173	47	51	75	△7,335	14	27,380
전 남	12	29,746	143	33	55	55	△9,344	12	31,570
경 북	5	44,707	256	72	81	103	5,617	4	44,544
경 남	4	46,979	282	90	91	101	7,889	3	47,609
제 주	16	12,966	105	33	35	37	△26,124	11	31,861
계		594,580	3,320	990	993	1,337			595,228

2. 제96회 종목별 득점 및 메달획득 현황

구분 종목	제 96 회						제 95 회					증 감(△)		비고
	득 점	순위	메 달			득 점	순위	메 달			득 점	순위		
			금	은	동			금	은	동				
계	39,090	6	52	60	96	39,497	7	50	60	84	△407	1		
육 상	3,228	4	10	8	10	3,042	5	9	10	5	186	1		
수 영	1,432	9	2	3	9	1,409	10	2	2	6	23	1		
축 구	999	5	1	0	1	650	9	1	0	0	349	4		
야 구	365	10	0	0	0	1,611	1	1	0	0	△1,246	9		
테 니 스	1,597	3	2	2	2	903	8	0	1	2	694	5		
정 구	654	9	0	0	1	205	14	0	0	1	449	5		
농 구	0	14	0	0	0	1,520	3	0	0	2	△1,520	△11		
배 구	823	5	0	0	1	768	11	0	1	0	55	6		
탁 구	1,142	6	1	1	2	828	10	1	0	1	314	4		
핸 드 볼	697	8	0	0	1	0	13	0	0	0	697	5		
력 비	632	7	0	0	0	833	9	0	0	0	△201	2		
사 이 클	1,136	8	2	5	1	689	12	2	2	1	447	4		
복 싱	1,508	1	4	1	6	1,235	6	4	1	4	273	5		
레 슬 링	1,053	11	3	4	6	1,502	3	5	9	10	△449	△8		
역 도	1,460	5	8	2	12	606	12	1	4	2	854	7		
씨 림	668	11	1	0	4	675	10	0	2	2	△7	△1		
유 도	580	15	1	2	2	280	16	0	0	3	300	1		
검 도	238	12	0	0	0	232	12	0	0	0	6	0		
궁 도	630	7	0	0	0	744	5	0	0	0	△114	△2		
양 궁	1,156	8	2	2	3	616	12	1	1	0	540	4		
사 격	1,036	6	1	3	4	1,343	5	2	4	5	△307	△1		
승 마	285	14	0	0	0	695	6	0	0	1	△410	△8		
체 조	454	12	0	0	4	357	15	0	0	3	97	3		
하 키	1,528	3	0	1	1	1,528	3	0	1	1	0	0		
펜 싱	673	11	2	0	0	475	14	1	0	0	198	3		
배 드 민 턴	771	10	0	0	2	1,451	3	0	2	2	△680	△7		
태 권 도	479	16	1	1	2	428	16	0	0	3	51	0		
조 정	1,136	5	2	1	1	1,182	5	2	0	2	△46	0		
볼 링	741	10	0	2	2	1,398	5	2	6	3	△657	△5		
롤 러	381	11	0	1	0	1,093	4	1	1	4	△712	△7		
요 트	1,925	2	0	2	2	2,035	2	2	2	1	△110	0		
근 대 5 종	1,119	6	2	1	0	499	12	0	0	1	620	6		
카 누	2,091	1	1	7	5	2,253	1	4	3	8	△162	0		
골 프	570	12	0	0	0	903	5	1	1	0	△333	△7		
보 디 빌 딩	812	7	1	1	1	1,110	3	2	0	2	△298	△4		
우 슈 쿵 푸	1,064	4	2	1	2	1,428	3	2	2	3	△364	△1		
핀 수 영	1,336	4	1	4	6	1,435	3	2	4	5	△99	△1		
세팍타크로	1,123	2	0	1	1	211	10	0	0	0	912	8		
소 프 트 볼	271	8	0	0	0	542	8	0	0	0	△271	0		
트라이애슬론	791	2	1	1	1	462	6	0	0	0	329	4		
스 퀴 시	202	14	0	0	1	0	16	0	0	0	202	2		
당 구	264	8	1	1	0	251	8	1	0	0	13	0		
산 악	0	5	0	0	0	0	5	0	0	0	0	0		
댄스스포츠	40	9	0	2	0	70	3	1	1	1	△30	△6		

3.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시도별 메달획득 현황

구분 시도	제45회					제44회				
	성적	메 달 수				성적	메 달 수			
		계	금	은	동		계	금	은	동
총 남	8	83	29	28	26	11	68	21	19	28
서 울	2	199	65	54	80	2	197	71	63	63
부 산	12	66	21	14	31	14	78	15	23	40
대 구	10	84	25	29	30	9	68	22	14	32
인 천	7	96	32	31	33	7	96	24	29	43
광 주	13	66	20	18	28	10	79	21	30	28
대 전	14	49	13	16	20	8	73	22	20	31
울 산	15	45	9	20	16	15	56	14	15	27
세 종	17	9	0	2	7	17	4	1	1	2
경 기	1	222	73	65	84	1	249	98	79	72
강 원	5	118	33	31	54	3	116	36	27	53
충 북	6	115	32	37	46	6	92	25	31	36
전 북	11	81	21	23	37	12	72	20	18	34
전 남	9	99	28	33	38	13	76	20	27	29
경 북	3	122	38	34	50	4	103	33	25	45
경 남	4	117	36	36	45	5	118	27	42	49
제 주	16	23	5	5	13	16	29	5	11	13
계		1,594	480	476	638		1,574	475	474	625

4.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종목별 메달획득 현황

구 분 종 목		메달 수	제45회(2016년)			제44회(2015년)			증 감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1	육 상	49	7	2	4	1	1	3	6	1	1
2	수 영	82	1	2	3	2	3	1	△1	△1	2
3	축 구	4	1		1				1		1
4	야 구	2									
5	테 니 스	4									
6	정 구	4		1	1	1			△1	1	1
7	농 구	4									
8	배 구	4	1	1					1	1	
9	탁 구	4	1		3		1	1	1	△1	2
10	핸 드 볼	4		1		1		1	△1	1	△1
11	력 비	1									
12	자 전 거	11			1						1
13	복 싱	13		1			2	2		△1	△2
14	레 슬 링	24		2	1	1			△1	2	1
15	역 도	48	6	2	1	3	2	2	3		△1
16	씨 림	14		1	1		1	3			△2
17	승 마	2									
18	유 도	23	1	2	3	1	1	2		1	1
19	검 도	1									
20	양 궁	24		2	1		1			1	1
21	사 격	8	2			3	1	1	△1	△1	△1
22	체 조	38	2	2	2				2	2	2
23	하 키	2		1	1	1		1	△1	1	
24	펜 싱	6		0	0			1			△1
25	배드민턴	4		1	0					1	
26	태 권 도	35	2	2	2	3	3	6	△1	△1	△4
27	롤 러	18									
28	카 누	8	4	2		1	3	2	3	△1	△2
29	조 정	4	1		1			1	1		
30	볼 링	6									
31	요 트	3		3		3			△3	3	
32	트라이애슬론	4									
33	근대 3종	6									
34	골 프	4									
35	바 둑	4						1			△1
합 계		472	29	28	26	21	19	27	8	9	△1

5.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시군별 메달획득 현황

순	지 역	제45회(2016년)			제44회(2015년)			증 감		
		금	은	동	금	은	동	금	은	동
1	천 안	7(1)	3(1)	10(3)	8	4(2)	8(2)	-1	-1	+2
2	공 주	3			2		3	+1		-3
3	보 령	1	4	2(1)	4	1	2	-3	+3	
4	아 산	3(1)	4	2(1)	2	4(1)	5(2)	+1		-3
5	서 산	4(1)			2(1)	1	6(1)	+2	-1	-6
6	논산계룡	3(1)	2	3(2)	2(1)	1(1)	1(1)		+1	+2
7	당 진	1(1)	4(1)	5		2	4(2)	+1	+2	+1
8	금 산	2	4	1		1		+1	+4	
9	부 여	2	3			3	2	-1	+1	-2
10	서 천			1						+1
11	청 양		1						+1	
12	홍 성	3	4(1)	3(1)	2(1)	1	1	+1	+3	+2
13	예 산	1	1(1)	2(1)	1(1)	1	1			+1
14	태 안	2		1		2		+2		+1

※ ()는 충남연합을 뜻함

6. 제45회 전국소년체전 역대메달 획득 현황

구 분		메 달				종 합 순 위	개 시 최 도
		금	은	동	계		
2005	34회	24	40	35	99	9위	충 북
2006	35회	24	28	28	80	9위	울 산
2007	36회	24	21	36	81	8위	경 북
2008	37회	24	33	40	97	7위	광 주
2009	38회	33	41	40	114	3위	전 남
2010	39회	37	26	39	102	5위	대 전
2011	40회	30	32	49	111	7위	경 남
2012	41회	33	22	39	94	5위	경 기
2013	42회	31	25	25	81	5위	대 구
2014	43회	21	16	33	70	11위	인 천
2015	44회	21	19	28	68	11위	제 주
2016	45회	29	28	26	83	8위	강 원

7. 제68회 충남도민체육대회 성적 현황

시.군	제68회 성적		전년도 성적		중 감	
	순위	점 수	순위	점 수	점 수	순 위
천 안 시	3	25,150	1	25,650	△500	11
공 주 시	7	15,700	10	13,400	2,300	4
보 령 시	6	17,950	7	16,200	1,750	5
아 산 시	1	26,300	2	24,600	1,700	7
서 산 시	5	19,400	4	20,250	△850	13
논 산 시	11	13,100	6	18,650	△5,550	14
계 룡 시	12	12,950	15	9,600	3,350	3
당 진 시	2	26,200	3	22,800	3,400	2
금 산 군	9	13,550	9	13,450	100	10
부 여 군	14	10,150	5	20,000	△9,850	15
서 천 군	15	8,950	14	9,650	△700	12
청 양 군	13	12,250	13	10,850	1,400	8
홍 성 군	8	14,450	12	12,700	1,750	5
예 산 군	4	20,200	8	14,350	5,850	1
태 안 군	10	13,300	11	13,150	150	9

MEMO



MEMO

